“소나무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

1. 기획 목적

○ 속리산을 대표하는 나무인 소나무에 대해 알아 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중 하나인 정이품송과 관련된 속리산 유래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속리산만의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원관리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 상 자 : 청소년, 일반성인
○ 계　　절 : 겨울
○ 운영코스 : 정이품송 앞 ~ 은구석공원
○ 소요시간 : 1시간
○ 참가인원 : 20명 내외
○ 준비물
- 해설자 : 해설 소품, 구급약
○ 운영주체 : 직원, 자연환경안내원

3. 프로그램 진행 목차

1) 만남과 인사
2) 정이품송에 대해 알아보아요
3) 솔방울로 놀아요.
4) 진터와 가마골에 얽힌 이야기
5) 소나무 쉽게 구별하기
6) 소나무와 진달래는 친구랍니다
7) 소나무 사촌 잣나무
8) 얼룩무늬가 아름다운 백송
9)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해송
10) ‘세조가 은덕을 입어 구원 받은 돌’
11) 야생화로 아름다운 강산 만들기
12) 마무리

4. 프로그램 진행 목차

1) 만남과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국립공원속리산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안내원 ○ ○ ○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이곳 속리산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이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럼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잘 알고계시네요 국립공원은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고 법주사와 같이 보호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있으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속리산국립공원은 1970년도에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속리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과 법주사, 문장대등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우리나라 소나무와 이곳 운구석공원에 있는 식물과 전해져오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겨울을 나는 식물의 지혜

겨울 산을 보면 가지만 앙상한 나무와 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겨울에도 나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나이테의 줄모양의 띠가 있는 것은 이 나무가 겨울을 몇 번이나 지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로서 나무의 나이를 아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봄여름 빠른 성장을 보이며 자라는데 겨울이 되면 온도와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에 잎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여 낙엽이 지고 겨울눈으로 다음해 잎과 꽃을 피울 수 있게 준비하여 겨울을 보냅니다.

3)정이품송에 대해 알아보아요

앞에 보이는 소나무를 보세요. 추운 겨울에도 푸른빛을 간직하고 있는 이 나무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렇게 멋진 모습의 소나무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소나무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임금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단종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된 어느 날 밤,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며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동궁은 이미 숨을 거두었고 침을 뱉은 자리가 곪기 시작하여 온몸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백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없자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쳐보고자 명산대찰을 찾아 이 곳 속리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데, 그때 임금이 타고 가던 연(가마)이 걸린다 소리치니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 올려 주어서 무사히 이곳을 통과했고 속리산에서 피부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소나기가 내려 소나무 아래서 세조 일행이 비를 피할 수 있었는데 세조임금이 기특한 나무라 하여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는 '정이품'이란 벼슬을 내려 정이품송 또는 연걸이소나무(연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된 정이품송은 높이 약 16m 둘레 4.5m 수령이 약 600~800년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커다란 우산을 펼쳐놓은 듯 단아한 모습이었던 이 나무는 1970년대 옆으로 도로를 내며 나무 주변을 정비했는데 나무의 생리를 전혀 무시한 채 나무아래에 쉼터를 만든다고 뿌리목 부근에다 흙을 두텁게 덮어둔 것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결국 나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흙을 걷어냈지만 이미 소용없었고 나무는 기력이 쇠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 솔잎혹파리의 피해 때문에 높이 18m에 이르는 철골 시설물에 방충망을 설치하기도 했고 1993년엔 강풍에 남쪽가지가 부러지는 수난으로 점차 균형미를 잃어가기 시작, 2001년 5월엔 삼척의 소나무와 혼례식을 치루고 2004년 3월엔 폭설로 북쪽가지 3개 마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이제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소나무! 속리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나무 정이품송을 각종 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하겠습니다. (동쪽을 가리키며) 저산을 넘어 외속리면 서원리에는 넓은 수형의 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이소나무의 부인이라 하여 정부인소나무라 부르며 천연기념물 제 352호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에는 밝은 녹색의 잎을 가져 세계희귀목인 황금소나무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조사한 자료를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를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남한 숲의 약 42%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솔가지를 끼워 대문에 금줄을 달았고, 소나무로 집을 지어 살면서, 생활용품과 땔감으로 썼으며, 솔잎으론 송편을 찌고, 먹거리나 약으로 쓰며 살다가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 솔밭에 묻혔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솔과 함께 태어나 솔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솔과 함 께 일생을 마감했다 하리만큼 소나무와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소나무를 '우리 민족의 나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4)솔방울로 놀아요.

여기 주변에 있는 솔방울을 5개만 주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우신 솔방울을 보면 고기의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안쪽에 곤충의 날개와 비슷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작은 알맹이가 달려 있는데 그 것이 소나무의 씨앗입니다. 올해 봄에 소나무가루가 날려 수정이 되면 올해가 지나 내년 가을이 돼서야 씨앗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솔방울을 물에 담그면 벌어졌던 솔방울이 움츠려듭니다. 그럼 이 솔방울로 간단한 놀이를 해볼까요? 자 들고계신솔방울을 제 모자에 넣는데 모자에 넣으면 10점, 모자에 넣지 못하고 맞출 경우 5점을 모자도 못 맞추면 0점으로 계산하여 제일 높은 점수를 따신 분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하셨기에 제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선물은 추운겨울 따뜻하시라고 손을 녹여 드리겠습니다.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해준다)

5) 진터와 가마골에 얽힌 이야기

이곳에는 옛 지역명이 생기게 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세조임금에게는 어려서부터 매우 영리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후, 김종서, 성삼문 등 충신들과 단종을 죽이자 '죄 없는 충신들을 죽이느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난 세조는 공주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딸을 걱정한 왕비 윤씨는 온갖 패물을 유모에게 주며 공주와 숨어살 것을 부탁하여 충남 공주 동학사로 도망을 하였는데 거기서도 위험을 느낀 공주일행은 낮에는 숨고 밤이면 걸어서 결국 보은 땅까지 오게 되었고, 정이품송 아래서 한 나무꾼을 만나 함께 살면서 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후일 그 나무꾼이 김종서 대감의 둘째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원수끼리 만나 부부가 된 셈이었지만 두 부부는 숯을 만들어 팔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조 행차 시 소나무 아래서 잠깐 쉬고 있는 데 자신의 딸과 똑 같이 생긴 아이를 발견하였고 수소문 끝에 찾아가니 공주내외는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세조를 호위하던 군사들은 그들을 역적이라며 잡으려고 이 근처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에서 생긴 지명이 '진터', 그들이 숯을 굽던

곳을 '가마골'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6) 소나무 쉽게 구별하기

우리 민족의 나무라 부르는 소나무는 정이품송과 같은 '적송'을 말합니다. 소나무는 세계적으로 약 100여 종류가 있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 숲의 대표적인 소나무로는 적송과 리기다소나무 그리고 잣나무 등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잎이 2개씩, 리기다소나무는 3개씩, 잣나무는 5개씩 모여 나오는 것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적송의 경우 수피가 붉은 색을 띠고 리기다소나무는 수피에 맹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소나무는 줄기가 곧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다 구부러진 것은 아닙니다. 경북 봉화, 울진, 삼척등지에서 자란 '춘양목(春陽木)'이라 불리는 소나무는 쭉쭉 곧게 뻗으며 굵게 자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질이 좋은 소나무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이 우수한 소나무들은 벌채해 일본으로 모조리 가져갔기 때문에 대부분 구부러진 소나무만이 우리 숲에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부러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지요? 만약 속리산에도 춘양목과 같은 잘 생긴 소나무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소나무가 없는 속리산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7) 소나무와 진달래는 친구랍니다

소나무 숲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른 솔잎들이 쌓여 있지만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소나무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면 몸을 보호가기 위해 송진을 분비하고, 특히 '테르벤'이라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여 자신의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숲은 점점 유기물이 없는 산성토양으로 변화하게 소나무 숲에 대한 적응력이나 햇볕이 잘 드는 숲, 이런 점들이 진달래에겐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해 키 큰 소나무와 그 아래 키 작은 진달래가 어우러진 숲은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버섯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향기가 좋은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아래 진달래가 자라고 그 아래 몰래 숨어서 자라기에 보기가 힘들다 하네요.

8) 소나무 사촌 잣나무

잣나무는 우리나라 특산나무입니다. 그래서 학명에 코레이언시스(koraisis)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는 바늘잎이 2장씩 모여 나는데, 잣나무는 5장씩 모여 나며 그로인해 소나무보다는 풍성해 보이지요. 소나무와 비교해 훨씬 더 큰 잣송이가 달리는데 열매가 익기까지는 2년이 걸립니다. 잣나무도 후손을 지키기 위해 잣송이가 익기 전까지는 질긴 비늘 조각들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거나, 겉에 송진을 아주 진하게 바르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잣송이도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의 잎 사이에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요. 후손을 지키기 위한 잣나무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잣송이는 왜 높은 나무의 가지 끝에만 달리는 걸까요? 나뭇가지 끝은 생장이 아주 왕성한 곳이기 때문이며 또 잣송이도 초록색으로 열매 자체도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공급하고 계속 커가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9) 얼룩무늬가 아름다운 백송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나무는 소나무 같은데 조금 다르죠? 껍질이 희다고 하여 '백송'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잎은 소나무가 2개, 잣나무가 5개인 것과 달리 3개씩 모여 나고 나무껍질이 어릴 때는 푸르스름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알록달록한 흰 얼룩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백송의 영어 이름은 껍질에 얼룩이 생기는 특징을 중요시하여 레이스파인(Lacebark Pine), 즉 '얼룩무늬소나무'라고 합니다. 백송은 중국이 원산지인 나무로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왕래하던 사람들에 의해 들여와 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속리산에서 가까운 보은군 어암리에도 약 200년 정도 된 커다란 백송(1962년에 천연기념물 104호 지정)이 자라고 있었는데 조선 정조 때 이 마을의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종자를 가져다 심었던 것으로 2년 전 쯤 고사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10)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해송

혹시 안면도나 강릉경포대에 가 보신 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바닷가 주변으로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는 솔밭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바닷가에 있는 이 소나무는 해송(海松), 흑송(黑松)이라고 합니다. 또한 곰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곰솔이란 소나무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바닷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약 30m정도로 자라고 껍질은 검은 회색이며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잎은 2개씩 모여 납니다. 바다에서 가옥 쪽으로 불어

오는 바람을 막아주기 위하여 심어놓은 것인데(방풍림) 곧게 자라는 다른 나무보다 이 소나무가 훨씬 해풍을 막기에 적합하다고 하네요..또한 소나무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 '세조가 은덕을 입어 구원 받은 돌'

이 돌은 본래 복천암에 있던 돌인데 세조(1464)가 복천암에서 사흘밤낮을 불공을 드린 후 피부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자 기뻐하며 불은에 보답하고자 스님들에게 '이 돌에 줄을 메고 끌고 가다가 힘이 빠져 멈추면 그 멈춘 곳까지의 전답을 절 소유가 되도록 허락할 것이다' 하였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기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복천암에서 법주사를 거쳐 보은 쪽으로 6Km정도를 끌고 왔는데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세조가 웃으며 이만하면 공양미와 식량이 될 것이다 하여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속리산 쪽으로 5,815만평의 땅을 절 땅으로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주사 소유의 땅이 되었고 그 때 세운돌을 '은구석', 그 선돌이 있는 산모퉁이를 '은구모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2) 마무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국립공원속리산의 소나무여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하여 무심히 지나친 소나무이지만 지구의 온난화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우리나라에서 100년 안에 소나무가 사라질 거라 합니다. 이러한 소나무를 여러분들이 아끼고 보전하여 100년 이후에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며 해설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